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: 전력산업과 양광석 팀장(2110-4900), 김은경 사무관(5471)

윤상직 장관, 여름철 전력피크 대응태세 점검
- 발전사·절전 우수기업 방문 / 전력수급 점검회의 잇달아 개최-

□ 금주 중반 이후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름철 최대 전력피크 발생이 임박

□ 이에 따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계, 발전소, 전력거래소 등 전력수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대응태세를 최종 점검할 계획

○ 8.7(수) 오후 2시 윤 장관은 수도권 전력의 7%를 공급하고 있는 남부발전 신인천복합화력(180만kW)을 방문,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고,

- 발전소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, 특히 피크기간에 발전기 고장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

○ 8.7(수) 오후 3시에는 근처에 있는 (주)한국기초소재를 방문, 조업감축을 통해 절전규제를 이행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, 정부의 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

- (주)한국기초소재는 지난 겨울철 34일간 실시한 절전규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행하였고, 비상시 수요감축, 긴급 조업감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절전 우수기업임

○ 이튿날인 8.8일(목) 12시에는 한전, 발전사, 전력거래소, 에너지관리공단 기관장들과 전력거래소 워룸에서 도시락 회의를 열어, 8월 수급상황에 대한 전망과 각 기관별 대응 태세를 최종 점검할 계획

- 점검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8월 전력수급전망과 수요감축 계획, 발전기 운영계획 등 맡은 분야의 대책을 보고하고,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

□ 윤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현재까지 공급 측면에서 발전기들은 최대 가동 상태에 도달해 있고, 절전규제나 휴가분산 등 수요감축 조치도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어 금년 여름철 수급난을 어렵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하고, "발전기 운영이나 수요감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"고 당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은경 사무관(☎ 02-2110-54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전력수급 현장방문 개요**

1 신인천복합화력(남부발전)

◇ 신인천복합화력은 수도권 전력의 7%를 공급하는 발전소로서, 계통이 취약한 인천지역의 파급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

○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장도로 57(경서동 674-13)

○ 발전설비 용량

구 분	가스터빈(GT)	증기터빈(ST)	계
설비용량(만kW)	120	60	180
	15만kW × 8대	15만kW × 4대	

2 (주)한국기초소재(대표 배형모)

◇ **수요관리 적극 참여 업체**

* 지난 겨울 절전규제 100% 이행(34일)

○ 소재지 :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-23

○ 주생산품 : **시멘트 원료**(고로슬래그, 저발열 시멘트 등), 플라이애시 등

3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체계 점검회의

○ 일시 : '13.8.8(목), 12:00~13:00

○ 장소 : 전력거래소 **워룸 (도시락회의)**

○ 참석 : 윤상직 장관, 한전 부사장, 중부발전 사장, 남부발전 사장, 전력거래소 이사장,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